

## ■ 현장과 시각 ■

## 김치업체 잡는 HACCP

&lt;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gt;



이종태

경제부 부장  
50여개를 넘던 광주·전남 김치업체 수가 최근 3년 새 30개 미만으로 줄었는가 하면 남아있는 업체들도

한 목소리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김치종주국의 본향'으로까지 불려온 남도김치가 왜 이렇게 쇠락한 것일까. 지난 2005년 기생충 알 김치파동을 겪은데다, 매년 흉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산 김치에 책임 탓이다. 올 1~9월 광주의 김치 수입량은 101만t(천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3.6% 증가했다). 수입김치 값은 국내산의 4분의 1에 불과해 지역내 일반음식점에 납품되는 김치의 70~80%를 점유, 국내산의 설자리를 빼앗아버렸다.

수출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3년 전까지 일본에 연간 6억~7억원의 김치를 수출하던 광주 A업체의 경우 국내산 수출단가의 9분의 1을 밟는 중국산 공세에 밀려 수출을 포기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4월 정부가 김치업체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도입의무를 부과하면서 지역업체의 앞날은 더 험난할 것으로 예고된 상태다.

이로 인해 학교 등 대규모 급식단체에 김치를 납품하자면 5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HACCP 시설을 갖출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직원들 월급 마련하기조차 곽곽한 상황에서 여기에 거금을 쏟아부을 업체가 얼마나 있겠는가.

현재 천연발효식품에 HACCP를 도입한 나라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부는 중금속과 기생충암이 검출된 중국산은 제외한 제국 국내 김치업체에만 죽례를 채운 셈이다. '국내기준을 먼저 적용한 뒤 중국 쪽에 HACCP를 요구하는 것이 통상의 원칙'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들어서 말이다.

결국 HACCP는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600여개에 달하는 김치업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게 뻔하다. 식품안정성을 높이려 한다면 수입산 김치에 대한 체계적인 검역절차 수립이 먼저다. 또 국내 업체에 대해 HACCP 시설도 강요할 필요는 없다. 기존의 '전통식품인증제도'를 활용하거나, 이 제도가 미흡하다면 보완책을 강구하면 된다.

얼마 전 광주김치축제가 끝났다. 김치축제가 대외 홍보용이나 위기에 처한 지역업체를 살리는 내실있는 축제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jtlee@kwangju.co.kr

## 선택 2008 미국 대선

## 국무장관 지한파 빌 리처드슨 유력

&lt;뉴 멕시코주 주지사&gt;

## ■ 오바마 차기 내각 누가 거론되나

## 재무장관 게이너·서머스 등 후보

## 지근거리 보좌 '시카고 사단' 부상

2008년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차기 내각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오바마 진영은 당선이 확정될 경우 며칠안에 차기 정부의 요직 인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1월20일 취임식까지 2개월 남짓의 권력공백을 막아 1920년대 대공황 아래 좌익의 신용위기에 최대한 신속히 대처하겠다는 것.

실제 뉴딜정책으로 대공황 종식의 계기를 마련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1933년 취임전까지 5개월 동안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아 경기악화를 방지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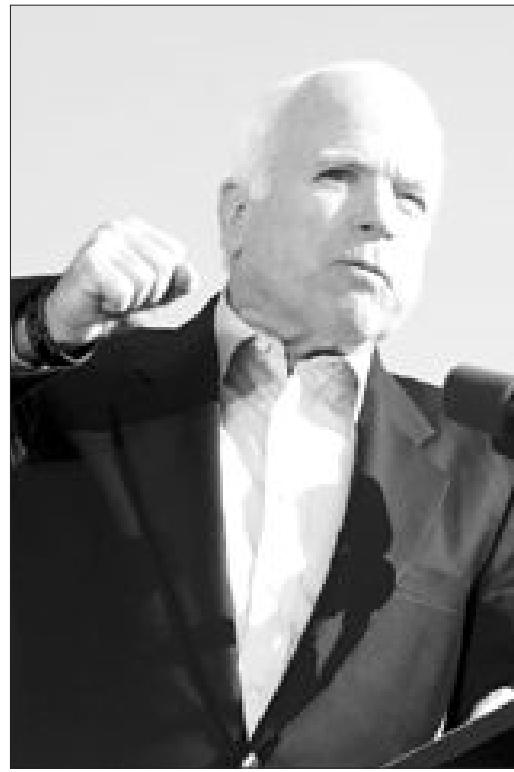
오바마의 선택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클린턴 전 행정부 관료 출신 인사들, 애초부터 자신을 지지해온 보좌해 온 '시카고 사단'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차기 행정부의 기초를 뒀을 정권인수위원회 수장은 클린턴 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역임한 존 포스터 미국진보센터(CAP) 소장이 이끌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선 재무장관으로는 팀 케이너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로버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 폴 블커 전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무장관으로는 지한파로 알려진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 주지사와 2004년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섰던 존 케리 상원의원 등이 후보군에 올라 있다.

공화당 지지심향의 주에서 선진한 재닛 나플리타노 애리조나 주지사와 캐슬린 세베리우스 캔자스 주지사도 정부 요직을 맡을 전망이다.

나플리타노 주지사는 법무부 장관으로, 세베리우스 주지사는 에너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방장관은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로버트 케이츠 현 국방장관이 유임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44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역사적인 선거가 4일 새벽(현지 시간) 시작된 가운데 오바마(왼쪽)와 매케인은 3일 플로리다 등에서 마지막 선거운동을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 오바마 키운 '백인 외할머니' 타계

민주당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외할머니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 선출이 유력시되는 역사적인 미국 대선을 바로 앞두고 3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타계했다. 향년 86세.

이에 따라 오바마 후보가 자신이 의지해온 '비위와 같이 든든한 존재'로 표현했던 백인 외할머니의 타계가 미국의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오바마는 여동생과 공동으로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할머니인 매들린 던힐이 암과 투병하다가 숨을 거뒀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매우 슬프다"면서 "그녀는 우리 집안의 주춧돌과 같은 분이었고 강인

함 그리고 결혼합을 지닌 여성이었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이날 오전 플로리다 짹슨빌에서 외할머니의 타계 소식을 접했고 계획된 선거유세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오바마 선거캠프는 전했다.

던힐의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던힐은 흑인 최초로 미국 대통령 당선을 눈앞에 둔 오늘날의 오바마가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보살펴 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 인물이다.

던힐은 그의 남편과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재혼해 살고 있던 딸을 대신해 오바마가 호놀룰루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살피면서 오바마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토양 역할을 했다. /연합뉴스

## 교육대/서울대/연고대와 명문대 합격을 위한 재수생 전문 종합반 광주일등학원의 재수생 선행학습반 / 예비고①②③년 교육대·서울대·연고대·명문대 특표반 안내



## 교육대/서울대·연고대·명문대 특표반

광주  
일등학원  
tel 227-2588

경·공대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무사 권수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 (주)옥션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앞)

친절상담  
법원 경매 062)222-8446  
H.010-3666-8446

## ▶ 균판상가

소재지	대/전	갈정가	최저가	비고
성남동	83	79500만	49200만	금호화이스도어/문/창
성남동	7.4	5600만	4400만	한국화이스도어/창
불광동	41	19400만	13400만	아름다운집/문/창
광주구	38	49300만	1억	글로벌나이처/문/창
32	591000만	1억8000만	이마트코리아/문/창	
봉산동	200	20억3000만	9억8000만	솔라리아/문/창/문/창
중화로	2	1억	4400만	길드원/문/창

## ▶ 균판주택

소재지	대/전	갈정가	최저가	비고
운현동	46/71	1억8000만	1억2000만	시무식 주택
유동동	50/179	2억8000만	1억8000만	상가/사무실
월봉동	56/101	2억4000만	1억8000만	아름다운집/문/창
화정동	341/661	163000만	95000만	한국교보생명
신기동	63/119	2억8000만	2억5000만	PC방/클럽/3층

## ▶ 속박시설(모델)/월봉

소재지	대/전	갈정가	최저가	비고
봉산동	85/299	49500만	2억5000만	5층/6층
누운동	134/400	149400만	58100만	6층/7층
금정동	36/49	1000만	5100만	기밀화재방지
성봉동	54/101	2500만	19700만	문호화재방지
승월동	63/298	59400만	3억2000만	7층/8층
남포동	832/626	15억4000만	5억6000만	4층/7층

## ▶ 오피스텔

소재지	대/전	갈정가	최저가	비고
인화동	46	4200만	2690만	노보트리뷴/층
차평동	158.7	3억3000만	2억8100만	트리뷴/층
차평동	30.4	570만	390만	랜드파이낸셜
화정동	40.5	700만	2510만	금호화이스도어
차평동	38.2	720만	4040만	구글드림/7층
신기동	76	5100만	2680만	세아모비씨/12층

## ▶ 견면지

소재지	대/전	갈정가	최저가	비고
평촌동	1893평	1억8000만	1억2000만	평촌동 1893평
평촌동	55,000원	평촌동 55,000원	평촌동 55,000원	평촌동 55,000원
농경화재	평촌동 55,000원	평촌동 55,000원	평촌동 55,000원	평촌동 55,000원
농경화재	평촌동 55,000원	평촌동 55,000원	평촌동 55,000원	평촌동 55,000원

## ▶ 차평진입가

소재지	대/전	갈정가	최저가	비고
평촌동	1893평	1억8000만	1억2000만	평촌동